

# 휴가철 광주·전남 코로나 확진자 급증

### 8477명...전주 대비 3000여명 늘어 장성 상무대 교육생 76명 집단감염 전국 재유행 확산 15만명 육박

휴일·여름 휴가시즌을 타고 광주·전남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장성 상무대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도 지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 이동·접촉 증가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며 15주만에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중간'에서 '높음'으로 상향했다.

특히 재감염 비율도 높아지면서 개인방역 등의 차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3461명, 전남 5016명 등 8477명이 코로나19에 신규 감염됐다.

전남의 경우 지역별로 순천 934명, 여수 902명, 목포 738명, 광양 508명, 나주 305명, 해남 173명, 장성 152명 등에서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다. 장성은 관내 상무대에서 군 교육생 등 76명이 한꺼번에 확진되는 등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일일 확진자는 3000~4000명 수준을 오르내렸는데, 이날은 두 배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15만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4만 9897명 늘어 누적 2069만 423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만5292명)보다 9만4605명 많다. 하루 확진자 수가 14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14일(14만8423명) 이후 117일만이다.

이날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일(11만

1758명)의 1.34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6일(9만 9246명)의 1.51배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커지면서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도 '높음'으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8월1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15주 만에 '높음'으로 평가했다.

지난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의 주간 위험도는 모두 '중간'이었는데, 이중 비수도권만 위험도를 상향한 것이다. 이는 중증 환자 대비 의료역량이 부족하고 병상 부담이 큰 비수도권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재감염자도 늘고 있다. 7월 3주(17~23일) 재감염 추정사례는 2만7713명으로 주간 확진자 중 6.59%, 7월 4주(24~30일) 재감염 추정 사례는 2만8966명으로 주간 확진자 중 5.43%였다. 7월 2주 재감염자 비율이 3.71%였던 것과 비교하면 재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당부다.

방역당국은 재감염 증가 원인으로 "누적 최초 감염자가 증가하고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큰 B.A.5 점유율이 높아진 점, 자연 감염과 백신접종에 따른 면역 효과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9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 주차장에 코로나 19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고 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다시 설치되는 선별진료소는 오는 11일부터 문을 열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

## 민선 8기 첫 단체장 평가 김영록 전남지사 1위

### 리얼미터 조사...강기정 시장 6위

민선 8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첫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응답 도민의 71.5%로부터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70%를 넘어서 민선 7기에 이어 꾸준히 도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6.8%로 6위에 올랐다. 경북 이철우 지사(63.5%), 김주겸 울산시장(59.8%), 김관영 전북지사(59.3%), 김동연 경기지사(58.8%) 등이 김 지사의 뒤를 이었다.

7월 조사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는 53.1%, 부정평가는 31.3%로 집계

됐다. 15위 이상우 대전시장(44.4%), 16위 유정복 인천시장(42.9%), 17위 최민호 세종시장(42.2%) 등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제주 김광수 교육감이 59.3%로 1위를,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58.8%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이정은 광주교육감은 45.6%로 12위에 그쳐 전국 교육감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48.3%)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는 서울이 74.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72.2%), 제주(67.4%), 전남(67.3%)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49.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책과 가까운 도시'...도서관 인프라 확충

### 시립 도서관 3곳 새로 건립 중

### 내년 동·서·남구에 1곳씩 개관

광주시가 '책과 가까운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 확충에 나선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19~2023년)에 맞춰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을 기치로 도서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상무지구 옛 소각장에 광주 대표 도서관, 광산구에 하남시립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관 등 시립 도서관 3곳을 새로 건립하고 있다.

정부 '10대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해 북구 중흥·신용 도서관을 개관했으며 내년에는 동·서·남구에 1곳씩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운암·일곡·무등 도서관에서는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립도서관과 지역 13개 서점이 협력해 운영하는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립도서관 회원증으로 지역 서점에서 읽고 싶은 책을 한 달에 5권까지 2주간 빌려 읽을 수 있다.

지하철역, 터미널, 공원, 복지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유(U)-도서관 서비스'도 확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미성년자 '빛 대물림' 막는다

###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 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 되살아난다

### 전남도, 문화재청 공모 선정

### 2024년부터 5년간 360억 투입

###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조선 말기 열강들의 격전장이었던 여수 거문도 영국군 묘지, 해저통신케이블 등 근대역사공간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새롭게 조성된다.

전남도는 9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일원이 문화재청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공모'에서 전국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근현대기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재생을 활성화하

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부터 5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근·현대기에 형성된 거리와 마을 지구 등을 보유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총 9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심사, 현지조사, 종합평가 등 과정을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여수시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이 확정됐다.

이번 공모로 거문도는 섬에 소재한 근대문화유산의 집적도, 진정성, 역사성, 장소성 등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거문도사건 등 근대문화 유입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내항을 중심으로 한 근대 가옥거리의 건축사적 가치, 의사당 건물 등 섬 지역 근대유산이 집중적으로 보존돼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거문도는 영국 함대가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1885년

3월 1일부터 1887년 2월 5일까지 2년간 불법 점거했다.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5년간 여수 삼산면 일원에 총사업비 36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사업은 주로 학술조사 연구, 역사 문화 공간 조성, 등록문화재 보수·복원, 역사경관 회복 등 보존기반 조성사업을 비롯해 교육·전시·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활용 기반 조성사업이 펼쳐진다.

김영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지역문화를 하나로 묶으면, 점점 낙후되고 소멸되는 도서 지역에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경기,수도권 투자**  
5억원 이상  
(주)오천. 010-3605-5000

**지분 부동산 삽니다**  
맹지사절. 010-6837-4700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셔틀→거문도 왕복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셔틀→거문도 왕복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